고전 음악회의 장소 파괴 현상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와 〈로댕갤러리 음악회〉

장일범 · 음악평론가

필란드의 음악회장, 발상의 전환

지난 여름 중세 고성에서 열리는 오페라 페스티벌로 유명한 핀란드의 사본린나 오페라 페스티벌에 갔었을 때의 일이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공항에서 헬싱키로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데 한 여객기가 공항에 도착했다. 손님들이 모두 내려서 작은 공항으로 들어오자 목소리를 고르고 있던 베이스 가수가 피아니스트와 함께 베르디 오페라 '시몬 보카네그라' 중의 베이스 아리아를 부르기 시작했다. 사본린나에 취재를 온 기자단과 손님들을 위해 공항 로비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린 것이었다. 공연은 짧았지만 신선했다. 조그만 시골 공항 로비에서도 음악회를 할 수 있구나하는 것을 깨닫게 한 공연이었다. 발상의 전환이었다.

다시 한번 핀란드를 찾아 사이마 호반의 중심 도시 미켈리를 찾았을 때 필자는 또 한번의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 유명한 핀란드 자작나무 숲으로 초청되었다. 곧 놀라게 될 것이라는 담당자의 설명과 함께 도착한 곳은 깊은 숲 속의 통나무집이었다. 이름은 '사냥꾼들의 오두막' 즉 숲에서 사냥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쉼터 같은 곳이었다. 한쪽에는 동물 껍질을 벗기는 공작실도 있어서 약간의 피비린내도 맡을 수 있었지만…

주위엔 온통 숲뿐인데 어디서 다들 알고 왔는지 통나무 집안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헬싱키 필하모닉 단원인 바이올리니스트를 비롯한 현악 트리오가 연주를 시작했다. 전반부는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였다. '피터와 늑대'를 연상시키는 푸른 숲 속, 사냥꾼들의 통나무집에서 벌어진 음악회. 휴식 시간에는 모두들 밖으로 나와 사냥꾼들의 집답게 카니발이라도 벌이듯 소시지를 구워 먹었다. 핀란드 보드카와 함께. 이어진 2부에서는 작곡가 얀 시벨리우스의 핀란드적 내음으로 가득한 트리오가 연주되었다. 공항과 숲 속의 통나무집에서 열리는 클래식 음악회.

오늘 21세기의 클래식 음악회는 장소를 탓하지 않고 어디에서나 열릴 수 있는 성격의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런 현상은 비단 핀란드를 위시한 서구 유럽 국가들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콘서트와 콘서트홀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이제 연주자들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크고 작은 음악회를 찾아 다니며 연주를 하고 있다.

아트선재센터의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

대표적인 징후는 지난 세기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음악회 장소 파괴의 중심이 된 것은 미술관이었다. 미술관과 화랑 음악회는 1990년대 초반부터 산발적으로 열려 왔었는데 미술관 음악회를 정례화시킨 것은 1999년부터 시작된 아트선재센터의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와 로댕 갤러리 음악회였다. 두 대표적 미술관 음악회는 공교롭게도 탄생 시점을 같이 한다. 로댕 갤러리 음악회는 1999년 6월에 시작했고, 아트선재센터의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는 같은 해 7월에 시작했다. 마치 파리의 19세기말 '벨 에포크' – 아름다운 시대를 재현이라도 하려는 듯 미술관들이 나서서 음악과의 만남을 주도하게 된 것이다.

지금은 서울 아트 시네마라는 예술영화 전용 시네마 테크로 사용되고 있지만 1999년에서 2001년 중반까지 아트선재센터의 지하 극장은 음악회와 세미나 , 영화 상영이 동시에 이뤄지는 독특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먼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즌제를 도입해 1999 – 2000 시즌, 2000 – 2001시즌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획기적인 시도를 했던 아트선재센터의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는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오후 3시에 'Sunday with the Arts'라는 부제하에 공연을 했고 이 음악과 미술, 문학, 철학, 역사가 링크된 음악회 시리즈는 청중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클래식이 핏속에 흐르거나 생활화되어 있지 않은 한국 청중들에게 클래식 음악에 대한 가이드를 아트선재센터의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가 제시해 주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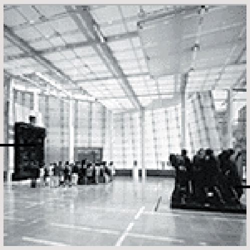
1999년 7월 18일부터 시작된 아트선재센터의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는 특별한 주제로 음악회들을 채워나갔다. '사랑의 시인' 알렉산드르 푸슈킨 탄생 2백주년, 지중해의 풍경, 지중해의 노래, 집시의 시간, 디아길레프와 발레 루스 그리고 동반자들, 쇼팽 서거 150주년 기념 '쇼팽과 상드의 사랑과 모험', 설원 속의 러이사 로망스와 민요, 프랑스 인상주의 회화와 음악, '달과 꿈' 야상곡, 독일 낭만주의 회화와 음악, 샤갈과 유대 바이올린 음악, 베토벤과 조각가들, 천사의 화가, 천상의 음악 – 하프 등으로 1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런 주제를 통해 인문학의 향기가 느껴지면서 동시에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풀어주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가 되어 주었다.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의 성공은 1년 연장으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방으로도 이어졌다. 경주 선재미술관에서 펼쳐진 경주판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는 경북 지방의 인기있는 음악회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기도 했다.

〈로댕갤러리 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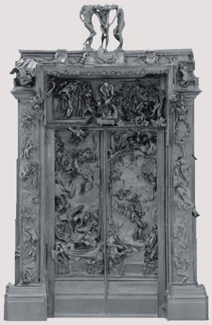
아트선재센터의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에 이어 강북의 문화 지도를 바꾼 기획 시리즈는 공연장이 아닌 갤러리 로비에서 음악회를 연 로댕갤러리 음악회다. 오귀스트 로댕의 조각들이 전시되어 있는 남대문 앞 로댕갤러리는 파리의 로댕 뮤지엄을 떠올리게 하는 독특한 멋을 지닌 미술관이다. 이 곳에서 열린 〈로댕갤러리 음악회〉는 1999년 6월부터 9월까지는 피아니스트 박은희에 의해서 또 이어 1999년 9월부터 11월까지 음악평론가 김춘미씨가 맡아서 프로그래밍을 해오고 있었다.

필자는 그해 12월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2004년 현재까지 로댕갤러리 음악회의 프로그래밍을 해오고 있다. 먼저 음악회에 제목을 달면서 분위기를 새롭게 해 봤다. 누구누구 독주회, 리사이틀 이런 식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음악회 제목에서 탈피해서 이선이의 '사랑의 인사', '인도의 영혼' – 오리엔탈리카, '우리 소리로 듣는 서정적 풍경' – 국악 실내악단 소리 누리, Jazz Now, 'Shall We Dance' 배일환 첼로 독주회, 美醜 – 아름다움과 추함 – 해금 강은일, 피아노 박창수, '天上風景' –플루트 이주희, 하프 이교진, 한국의 서정시, 좋은 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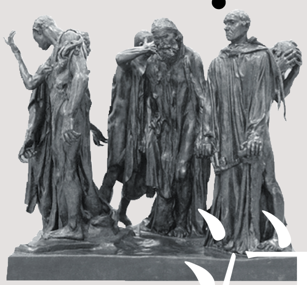
오늘 21세기의 클래식 음악회는 장소를 탓하지 않고 어디에서나 열릴 수 있는 성격의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런 현상은 비단 핀란드를 위시한 서구 유럽 국가들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콘서트와 콘서트홀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이제 연주자들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크고 작은 음악회를 찾아 다니며 연주를 하고 있다.



로댕갤러리 클래스 파빌리온 내부전경



지옥의 문



깔레의 시민

洋樂

들, Jazz Spring, ‘가을의 전설’ 첼리스트 임경원, ‘보로딘이 있는 저녁’, ‘차이코프스키의 겨울 저녁’, 가야 현악 4중주, String Fantasy – 바이올린 임지은, 비올라 김상진, 첼로 이명진 등 콘서트 프로그램에 어울리면서도 개성있는 제목으로 콘서트를 포장, 청중들이 관심을 갖고 미술관 음악회에 찾아오도록 했다.

로댕갤러리는 어느 곳과도 같지 않은 독특한 분위기를 지닌 곳이다. ‘지옥의 문’과 ‘칼레의 시민’이 파빌리온 건물 안 로비에 놓여있고 바로 그 로비에서 음악회를 연다. 일반 콘서트홀이 아니기에 음향은 상당히 울리는 편이지만 통상 ‘지옥의 문’ 앞에서 연주를 하는 경우 청중들이 가득 들어차면 흡음 작용을 해서 놀랍게도 꽤 선명한 음을 얻을 수 있다. 로댕 갤러리에서 연주한 바 있었던 테너 박인수는 “유럽 성당에서 연주하는 듯한 신비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홀”이라고 로댕갤러리의 음향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로댕갤러리에 기획 전시회가 있을 때마다 격주로 목요일 저녁 7시에 열리는 〈로댕갤러리 음악회〉는 연주와 필자의 해설을 곁들여 보통 50-60분 간 진행되는 데 2 – 3백 명의 청중들이 몰려들어 늦게 온 청중들은 서서 음악회를 감상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음악회 입장권은 따로 없고 갤러리 입장권이 바로 티켓이기 때문에 콘서트가 있는 날 저녁 무렵 로댕갤러리를 방문하면 전시회와 음악회까지 2 FOR 1으로 감상할 수 있다.

로댕 갤러리 초반에는 부모의 손을 잡고 온 어린아이들이 음악회 분위기를 소란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이제는 교육이 제법 잘 되어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음악회를 즐길 수 있다.

음악회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로 구성된다. 2001년 중반부터는 오프닝 공연은 늘 재즈로 장식을 하고 있으며 합창, 성악, 인도음악, 관악, 실내악, 국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소화해내고 있는데 ‘지옥의 문’ 정중앙에 자리잡은 ‘생각하는 사람’(The Thinker)이 이 음악들을 골똘히 듣고 있는 것 같은 ‘환상적인 착각’을 하게 만든다.

시청과 남대문 사이 도심 한가운데 자리잡은 로댕갤러리는 도심 속의 오아시스 역할을 해내고 있다. 메마른 빌딩 숲 사이에서 5년째 펼쳐지고 있는 미술관 음악회 〈로댕 갤러리 콘서트〉는 대중으로 하여금 미술과 음악을 동시에 누리게 하는 문화전파자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장소에서 열리는 음악회

이제 미술관 음악회가 여기저기에서 열리고 있다는 반가운 뉴스들이 들려온다. 종로구 사간동 금호갤러리에 있는 홀에서는 음악회와 매스터클래스 그리고 고전음악 강좌가 열리는 등 미술과 음악이 조화로운 공존을 하고 있다.

또 양평에 있는 서호갤러리에서는 화음체임버 오케스트라 멤버들로 구성된 실내악 공연을 정기적으로 열고 있으며 김창실 대표가 운영하는 선화랑은 최근 새로 지은 인사동 건물에서 4월부터 주말마다 미술관 음악회를 열 예정이다. 음악평론가 탁계석은 미술세계와 함께 파이낸스 센터와 분당 등의 갤러리에서 회원제 화랑음악회를 시작했다.

위의 예들처럼 최근 미술과 음악이 자주 만나고 있다. 세르게이 디아길레프가 레옹 박스트, 피카소, 마티스 같은 화가들과 사티, 스트라빈스키 같은 음악가들을 결합시켜 최고의 예술들을 만들어 냈던 것처럼 미술관과 화랑은 바로 미술과 음악이, 화가와 연주가가 때로는 행복하게 때로는 치열하게 어울리는 공간을 통해 창조적인 생산물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외에도 고급 홈 시어터 전문샵인 삼성동의 ‘헤이스’(Heis)에서도 한 달에 한 번 꼴로 국내외의 클래식과 재즈 연주자들을 초청 살롱 콘서트를 갖고 있으며 명동 돌체 음악감상실을 잇는 일산의 음악감상실 ‘돌체’에서는 매주 토 · 일 주말에 크고 작은 음악회들이 열려 음악팬들에게 살롱 콘서트의 묘미를 전달해 주고 있다. 또 지방 폐교를 이용한 대관령 음악제도 회를 거듭할수록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이런 미술관을 중심으로 한 작은 음악회의 확산은 원래 적은 숫자의 청중을 두고 방(Camerata, Chamber)에서 연주하던 르네상스 이후 쇼팽 시대에 이르기까지 큰 흐름으로 지속되었던 살롱 콘서트의 연장선상에 있다. 하지만 21세기의 살롱 콘서트는 낭만주의 시대까지의 살롱콘서트들과는 다르다.

클래식 음악이 귀족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대중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이라는 것을 최근의 살롱 콘서트들이 음악회 장소 파괴를 통해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